

성(性)가족의 제도화와 근친상간 금지의 성정치

소 영 현*

차 례

- | | |
|------------------|----------------------|
| 1. 사회의 예로화 재고 | 3. 성(性)가족과 근친상간의 성정치 |
| 2. 성의 배치와 성의 위계화 | 4. 우생학적 위생 담론의 관리술 |
| 1) 기생철폐론과 일부일처론 | |
| 2) 성의 질병화와 성병 공포 | |

국문초록

식민지 조선이 근대적 면모를 갖추어가던 시기이기도 했던 1930년대 전후로 사회가 성애화되고 쾌락이 상품화되며 욕망이 젠더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근친상간 금지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가정화 경향을 이끌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푸코의 섹슈얼리티 논의를 빌려, '성적인 것'에 젠더적 성격이 부여되면서 섹슈얼리티의 구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드리우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복합적 '권력 작용'의 결과로서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성병 담론과 기생철폐론으로 가시화되었던 가정 안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밖의 성의 규율화, 즉 섹슈얼리티에 질병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의학적으로 규제하고 치료해야 하며 규율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섹슈얼리티를 가정에 속한 것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담론적 작동의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담론이 일상적 인식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당대에 인기를 끌었던 대중적 서사물로 우회하면서 추적해보았다. 섹슈얼리티와 혼인관계의 입체교차로인 가족이 섹슈얼리티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되면서 근친상간이 금기로서 작동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승방비곡』을 포함한 서사물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성병 공포와 근친상간 금지가 여성의 성적 욕망을 통제하고 내적으로 위계화하는 방식으로 성가족 제도를 구축하게 되는 성정치의 권력 작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섹슈얼리티, 근친상간, 성병, 기생철폐, 성가족, 성(性)문제, 에로, 우생학, 승방비곡

여성의 육체를 남성이 통제한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여성의 육체야말로 가부장제가 세워진 토대이다.
- 에이드리언 리치,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1. 사회의 에로화 재고

1930년대 전후로 조선사회에 성적 쾌락의 추구로 압축되는 ‘에로’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¹⁾ 집 바깥에서 남성을 위한 성적 공간이 확

1) 경성 본정 이정목 어구에 있는 명치정 골목의 이발소에서는 헤어뿐 아니라 손톱에 이르는 손질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마니큐어질[美爪師]의 등장을 통해 가시화된 것은 이른바 ‘에로 서비스’의 영역이었다. 여성이 남성에게 제공하는 ‘에로 서

대되는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잡

- 비스'가 조선에 상륙한 것이다.('에로·그로·넌센스 亂舞한諸尖端相(一)', 『조선일보』, 1931.1.2.; 서울 진고개를 넘어 평양과 부산으로의 진출을 예정하고 있었다. '에로·그로·넌센스 亂舞한諸尖端相(二)', 『조선일보』, 1931.1.4.) 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은 이발소에 한정되지 않았다. 당시의 기사는, 백퍼센트의 '에로'와 '이트'를 발산하는 여성이 백화점 근처나 늦은 밤 전차 정류장을 서성일 때, 그들이 제공하는 것이 연애의 행위와 다름없는 에로 서비스였다고 전한다. 에로 그로 문화의 일부로서 상륙한 에로 서비스는 확산세만큼이나 거센 사회적 우려를 낳았고, 그 우려는 사회에서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애와 불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경계로서 구체화되었다.('가을의 소년소녀에 무서운 유희의 손', 『동아일보』 1931.9.29.) 흥미롭게도 경계의 장소는 특정 장소라기보다 유희의 공간 전부를 가리켰다. '창경원', '남산공원' 등의 유희지가 여학생을 구경하거나 이성과의 '에로적' 사건을 만들기 위한 대중적인 에로 공간(에로적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온천이나 해수욕장 등의 유희지가 부르주아 계층의 에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연구』 5, 2005. 한국여성연구소, 62-66쪽.) 노골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페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약수터나 음악회, 활동사진관과 같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가 전부 에로 공간에 포함되었다.
- 2) 근대적인 도시 문화의 형성과 함께 요리점에서 카페로 유희 공간이 이동하면서 근대적인 유희가 좀더 대중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지영, 『'모던걸'의 경계선: 기생과 카페여급』, 『경성의 모던걸』, 여이연, 2013, 145-6쪽.), 유희의 대중화는 '에로 그로 넌센스'의 일반적인 코드로 재창조된 카페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는 과정과(Miriam Silverberg, 강진석·강현정·서미석 옮김, 『에로틱 그로테스크 넌센스』, 현실문화, 2014, 166-179쪽.) 카페를 거점으로 이루어졌던 에로산업의 확산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해야 한다. 1930년대 『조선공론』에 실린 카페 관련 기사를 검토한 박진경과 미야지마 요코의 작업은, 당시 카페 문화의 확산이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연구에 따르면 낙원장, 낙원회관(본관), 낙원별관, 낙원본정(혼마치) 지점 등 체인을 설립하고, 향후 부산에서 신경(장춘)에 이르는 조선과 만주국에 지점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낙원카페 체인 경영자인 나카노를 집중 조명한 기사들을 통해 북촌의 카페가 일본 카페기업 자본의 확장을 통해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도 동도 등을 거치며 카페 산업이 성공의 여파를 몰아 대북으로 이동 진출했던 대판의 대자본 카페가 일제히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경성, 구주, 대련으로 이동 진출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던 분위기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일본을 거점으로 한 카페산업은 일본 본토에서 조선과 중국으로 확장세를 피하고 있었다. ('경성을 내습할 대판의 낭자군', 『동아일보』 1931.3.11.) 일본 에로산업의 침범이었던 <미인좌>를 통해 자본화된 에로문화의 유입과 이식의 일면을 좀더 구체적

다한 성생활의 형태가 마련되는 동시에 다양한 성적 도착이 확립되고 있었다. 대중 매체에 의해 이전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성에 관한 논의가 넘쳐 나며, 가정 바깥으로 성적 쾌락이 흘러넘치고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성적 쾌락에 대한 억압적 금기의 해체나 그 결과로서 야기된 사회적 타락의 징후로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성적 쾌락의 해방은 젠더적 차원에서 누구의 것이었다고 해야 할까. 젠더적 시야 속에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의 변화를 해방된 성적 욕망의 분출로 인한 사회적 퇴폐화 현상이라는 일면적 면모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얼핏 살피더라도, 1930년대 전후로 바야흐로 에로티시즘의 시대가 열렸지만, ‘에로적인 것’의 성행은 우선적으로 조선사회가 근대적인 의미의 경제활동에 기초한 사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성관념과 성도덕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났지만, 그것은 개인의 자립이 정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기도 한 시대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려주는 변화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³⁾ 이러한 지점들

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사카에 본점을 두었고 오사카 내 분점들과 함께 교토와 후쿠오카 그리고 경성 진고개 한복판에 분점을 낸 <미인좌>의 경우가 보여주듯, 분점의 개장은 간판을 들여오는 것에 그치지 않는 오사카식 에로서비스의 이식이었다. <미인좌> 분점이 조선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구상된 것은 아니었지만(서비스를 담당하는 20여 명의 여성과 요리 담당인과 접객을 담당하는 ‘뽀이’까지 오사카에서 직접 공수되었다고 전해진다. 『에로뽀이가 되는 법: XXX, 에로 第七 駐屯軍 京城 美人座』), 남춘을 중심으로 한 카페가 ‘내지’인 제국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이가혜, 『제조일본인 미디어의 모던걸 부재와 여급의 표상』, 『비교일본학』 제50집, 105-106쪽. 조선 내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인기 여급 제일주의를 표방한 도쿄의 <알프스>와 저급함과 신기함으로 손님을 모은 오사카의 <미인좌>가 자본을 바탕으로 경성에서 대항전을 벌이기도 했다). 제조일본인에게 조선의 카페가 도쿄나 오사카에 있던 카페를 모방한 모조품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일본 영화의 여배우의 이름을 달고 이루어졌던 <미인좌>의 에로 서비스는 조선 남성들에게 ‘일본적인 것’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는 공간이었고, 제국의 에로산업이 부추긴 그 열망은 성적인 것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의 전환을 그 이면적 여파를 통해 즉 권력 작동의 역학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를 요청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중 매체를 통한 성 이론과 담론의 확산, 에로와 이트의 집산인 ‘카페’ 시장의 확산, 성 관련 질병의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에로적인 것’의 성행이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조선사회의 풍경에 젠더-위계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변화를 과연 성의 상품화 현상으로만 볼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근대적 가족의 형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드리웠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회의 가시화된 경향 변화의 낙차가 적지 않았으나, 따지자면 가시화된 경향에만 주목할 때,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수다한 이론과 담론의 유행이, 실질적으로는 인구를 조절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사회관계의 갱신 즉 “성생활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게끔 정비하는 것”에 기능적으로 복무하고 있었음을 간과하기 쉬워진다.⁴⁾ 섹슈얼리티의 은폐를 통해 구축되는 근대가족을 성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성(性)가족으로 명명할 수 있다면, 성을 가정화 하면서 성을 억압하는 가족의 형성은 역설적으로 생리적인 성적 욕구를 의미하지 않는 욕망으로서의 성욕이 가정 바깥에서 분출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⁵⁾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간과는 성가족의 형성을 자연화된 것으로 이해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억압되거나 통제되었는지를 포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사회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우선적 전제로서, 본고에서는 육체적 쾌락의 연속적 원인이자 기원으로서의 성이 아니라, 담론과 권력이라는 복합적이고 역사적인 관계망 혹은 작동 역학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주목하고자 한

3) 김옥엽, 『家庭制度와 性問題의 動向』, 『신여성』 제42호, 1931.12, 10-13쪽.

4) Michael Foucault(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나남, 2019, 45-46쪽.

5) 성(性)가족이 등장하면서, 섹슈얼리티와 성욕이 위생이나 건강 문제가 아닌, 사회와 가족, 가정 내 윤리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川村邦光(손지연 옮김), 『섹슈얼리티의 근대』, 논형, 2013, 87-89쪽.

다. 섹슈얼리티 개념에 기반해서, 권력 관계를 은폐함으로써 권력 관계를 영속화하는 전략을 가시화하기 위해 푸코Michael Foucault의 계보학적 통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푸코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계보학적 통찰의 미덕은, 겉보기엔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원인을 소거한 채 가시화된 ‘결과’임을 말해준다는 데 있다. 위반이 있기 전에 이미 성적 욕망이 존재하고, 그리하여 성적 욕망이 위반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며, 위반을 통해 구축되는 성의 범주가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담론적 설명의 근본적이고도 인과론적인 작용으로 보이게 된다 해도, 푸코 그리고 푸코로 우회하여 버틀러Judith Butler가 짚었듯이, 사태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 이 통찰의 핵심이다. 성을 분절되고 이분법적인 것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성적 경험과 행동 그리고 욕망을 그로부터 발원한 것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성 담론 확산의 전략적 목적이 쉽게 은폐될 수 있다. 성적 경험을 규제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 체제의 목적이 은폐되는 자리에서 ‘위반하는’ 성 자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성을 일원적이고 인과론적인 것으로 거짓 구성하는 담론의 작동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 성을 기원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로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⁶⁾

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형성을 살피기에 앞서, 1930년대 전후로 확산된 카페 문화로 대표되는, ‘에로[에로틱한] 분위기’에 대한 재고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 것은, 사회 전반을 휩쓸었던 에로 문화의 이면에는 1920년대 중후반의 사회주의 연애관 도입과도 무관하지 않은 바, 자유연애가 갖는 낭만적 성격의 탈각과 사회 전체의 근대화와 경제적 세계의 출현이 만들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놓여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에 대한 포착을 통해 에로화 경향이 은폐하는 권력 작용의 틈새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자유연애가 갖는 낭만적 성격이 탈각되는 과정에서, 별개의 것으로 이

6) Judith Butler(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127쪽.

해되던 연애와 결혼이 결합되며 인과적인 연관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과정에서, 에로적인 것은 좀더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⁷⁾ 정확하게 말하자면 낭만적 연애 감정과 육체적인 성행위로 분리되었던 정욕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정욕이라는 형태로 재편된 연결성을 갖게 된 것이다. 성적 욕망은 내면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욕은 내면적인 규율에 의해 지탱되는 관념적 욕망을 의미하게 된다. 자기억제와 자기관리를 통해 정신과 신체를 규율할 수 있는 근간으로서 정욕의 영역이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욕에 따른 주체의 자기형성과 정욕에 대한 윤리적 시선과 의학에 의한 감시적 시선 속에서 성가족의 제도화가 진행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⁸⁾

요컨대, 식민지 조선이 근대적 면모를 갖추어가던 시기이기도 했던 1930년대 전후로 사회가 성애화되고 쾌락이 상품화되며 욕망이 젠더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⁹⁾ 이러한 변화는 근친상간 금지를 통한 섹슈얼

7) 이성은, 『식민지 근대 카페 여급의 정치경제학적 위치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 23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07, 67-68쪽.

8) 川村邦光(손지연 옮김), 『섹슈얼리티의 근대』, 논형, 2013, 112-113쪽.

9) 물론 조선사회의 소비문화 풍경은 섹슈얼리티의 재편과 함께 큰 변화를 겪었음에 분명하며, 전사회의 에로화 경향 가운데에서도 도시문화의 성장과 함께 카페나 요리점, 바와 댄스홀 등의 공간을 본격적인 의미의 에로 공간으로 인식했음은 분명하다. 카페의 번창세가 초스피드적이었다면, 그 유명세의 대부분은 “에로서비스”에서 나왔다. 에로 공간에서의 ‘에로서비스’는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여겨졌고, 키스나 포옹을 포함한 에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조명의 밝기나 유성기의 소리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휴지통』, 『동아일보』 1931.09.13.). 중요한 것은, 이때 서비스된 ‘에로’가 임신과 출산 혹은 가정 내로 환원되지 않은, 이른바 집 바깥의 쾌락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카페를 거점으로 사회의 성애화가 전면화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에로적’ 행위가 은밀하고 후미진 곳이 아니라 소비문화의 한복판인 근대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이다. 쾌락은 숨겨야 할 은밀한 무엇이 아니라 교환 가능한 상품이 되었고, 그에 따라 욕망은 근대화되는 동시에 젠더화되어, 욕망하는 주체와 대상의 구도가 젠더화된 배치 속에서 폭넓게 근대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살펴보고자 하는 바, 이

리티의 가정화 경향을 이끌고 있었다. 가족-가정 바깥에서 범람하는 성과 달리 가족-가정 내 성은 은폐되며, 신체적·정서적 규율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를 통해 가족-가정은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정치적 공간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 메커니즘의 권력 작용을 검토하면서, ‘성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다층적 전환의 국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적인 것’에 젠더-위계적 성격이 부여되면서 섹슈얼리티의 구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재편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드리우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볼 것이다. 성적 욕망을 가정 안팎으로 배치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담론들, 기생철페론과 성병 담론으로 가시화되었던 성의 규율화, 즉 섹슈얼리티에 질병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의학적으로 규제하고 치료해야 하며 규율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섹슈얼리티를 가정에 속한 것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담론적 작동의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질병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그에 대한 금지로서의 근친상간 담론을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을 통제하고 내적으로 위계화하는 방식으로 성가족 제도를 구축하게 되는 성정치의 작동 역학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성의 배치와 성의 위계화

1) 기생철페론과 일부일처론

성적 욕망을 가정 안팎으로 배치하고 규율한 대표적 담론 가운데 하나인 기생철페론부터 살펴보자. ‘기생의 민중화’라는 기묘한 발상으로 ‘에로적인 것’의 사회적 유포를 언급한 『동광』에 실린 한 글에 의하면,

러한 인식적 변화가 사회에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1930년대 전후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이름난 요릿집이 아니어도 ‘기생’과의 유흥을 즐기는 행위가 누구에게나 가능해졌다. 이러한 세태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물론 비판적이었다. 필자는 “商去來를 하라고 해도 기생, 學校 入學運動을 하려고 해도 기생, 利權運動, 就職運動에도 기생, 學生의 送別會도 기생, 新年에 기생, 꽃 피었다고 기생, 배노리에 기생, 약수터에 기생, 달구경하자고 기생, 忘年하자고 기생, 四時장철 기생이니 이려고도 이 社會가 시들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늙은이도 기생, 젊은이도 기생, 敎員도 기생, 生徒도 기생, 失業家도 기생, 實業家도 기생, 이려고도 어찌 國民의 元氣가 摩震소진되지 아니할까.”¹⁰⁾ 교제라면 기생을 소개해주는 것으로, 연회에서 기생은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풍조가 심해져서, 어떤 의미로 기생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의 하나”¹¹⁾가 되었다고 탄식한다. 기생제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 지도층이 할 수 있는 설문 응답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기생제 철폐의 해법을 기생 자신과 남성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에서 찾고 있었다.¹²⁾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朝鮮의 賢母良妻가 交際와 교양과 취미가 능히 기생을 凌駕하게 되어야 한다. 家庭婦人의 타입에서 社交夫人의 타입으로 變形을 해야 한다. 家庭에 『섹스 압필』을 주어라. 家庭을 娛樂化하라. 家庭을 音樂化하라. 家庭을 社交化하라. 그리고 이 모든 責任은 특히 婦人에게 있다. 기생 打倒萬歲!¹³⁾

당연하게도, 그러한 해법이 남성중심주의적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¹⁴⁾ 가령, 인용문에서처럼 가정부인이 사교

10) 한청산, 『妓生撤廢論』, 『동광』 제28호, 1931.12, 58쪽.

11) 한청산, 『妓生撤廢論』, 『동광』 제28호, 1931.12, 56-57쪽.

12) 오기영, 『賣淫制度論, 妓生制度撤廢 諸意見을 檢討함』, 『동광』 1931.12, 29쪽.

13) 한청산, 『妓生撤廢論』, 『동광』 제28호, 1931.12, 59쪽.

부인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요청은 가정에서의 성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기생제도를 타파하는 동시에 주부가 기생의 역할까지를 수행해야 한다는 식의 이런 해법에는 근본적으로 성녀-악녀 식의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을 성적 역할로 분리한 인식 위에서 그 통합적 면모를 갖춘 여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기생철폐론의 근본적 한계를 확인하게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은 매우 역설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전환 이후 ‘에로’ 감각의 구성적 일면을 포착하게 한다는 점에서 좀더 면밀하게 짚어 봐도 좋을 것이다. ‘에로적인 것’이 가정 바깥으로 내쳐지면서 가정을 경계로 한 성역할의 분할이 뚜렷해지는 한편, 실상 저 논의에 따르면 가정 내 여성(아내)의 ‘섹스 어필’한 면모의 획득이 좀더 중요해진다. 가정을 ‘오락화하고 음악화하며 사교화하라’는 주장은 집을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바꾸라는 요청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전 사회의 성애화를 확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 요청은 성이 철저하게 가정 내부의 것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단면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1930년대 전후로 근대적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이상적 가정’론이 첩 문제와¹⁵⁾ 함께 기생제 철폐와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졌던 것도 그리 기이하다 여길 수 없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졌던 폐창운동에 대한 반성은 1930년대 들어서면서 성매매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주목으로 이동해 가는데,¹⁶⁾ 1931년 『동광』에 실린 성 관련 논의들은

14) 시대적 인식의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할 면이긴 하지만, 가정 내 부인의 기생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맥 빠지는 논의가 아닐 수 없다.

15) 근대적 일부일처제의 법적 제도화 과정은 첩을 법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만들었다.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제 65호, 한국사회사학회, 2004, 6-40쪽; 정지영, 『1920-30년대 신 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 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6, 47-84쪽;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적화와 ‘첩’의 문제』, 『여성과 역사』 제9집, 한국여성사학회, 2008, 79-119쪽.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마련하고 있었다. 1931년 『동광』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기생을 ‘창기’와는 다른 존재인 예술가로 차별화하려는 경향 속에서도 기생을 천한 존재로 여겼던 저변의 인식을 부인하기는 어렵다.¹⁷⁾ 그럼에도 『동광』의 설문은 기생을 거리에서 성을 파는 존재로 보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부도덕한 일면들을 비난하는 방식의 논의에서 한걸음 벗어나서, 이 사회에서 기생 제도가 지속되는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층위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¹⁸⁾ 응답자들은 기생제가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존중받을 수 없는 제도이며,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보아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결혼 제도의 불합리한 면모가 낳은 부산물이라는 점에도 공통적으로

16)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역사』 제26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198-199쪽.

17) 1908년 「경시청령」 이후로 ‘기생’을 관리하는 ‘기생조합’과 ‘창기’를 관리하는 ‘창기조합’은 구분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창기’를 제외한 모든 성관매 여성이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자와 가타카나 혼용문으로 이루어진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 세칙이 식민지 조선인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얼마나 발휘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나 조합 규약을 통해 성매매의 대중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경찰은 ‘밀매음’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고, 특히 고급 ‘예기’는 사실상 단속에서 제외했다(서지영, 「도시 공간과 친밀성의 상품화」, 『경성의 모던걸』, 여이연, 2013, 190-191쪽; 송연옥,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도와 ‘위안부’ 제도」, 西野瑠美子·小野澤あかね(번역공동체 있다 옮김), 『일본인 ‘위안부’ 애국심과 인식매매』, 논형, 2021, 70-71쪽). 그러나 법률 조항이나 법률에 입각한 처벌 항목의 존재와 그것의 실질적 효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예기(藝妓)’는 조선의 ‘기생’과 ‘예기’를 통칭하는 범주로 요릿집에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이들, ‘작부(酌婦)’는 음식점에서 술시중을 드는 이들을 가리킨다. ‘예기’와 ‘작부’는 원칙적으로 성을 파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성관매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극심해지는 실업과 그로 인한 빈곤과도 무관하지 않은 바, 1920년대 후반부터 이른바 ‘점객업’에서 ‘창기’보다 ‘예기’가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조선인이 급증하였다(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1, 208-214쪽).

18) 주요한, 「성에 관한 諸問題」, 『동광』 제28호, 1931.12, 44-45쪽.

입을 모았다.¹⁹⁾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기생의 존재 자체가 남성 본위 시대의 산물이자 봉건적 제도의 잔유물이라는 점을 짚어내고자 했다. 현진건이나 주요한 등 기생철폐론을 주장하던 대표적인 남성 지식인들이 주요 논거로 삼고자 한 것이 이 지점이었다.

1. 이 問題는 물으신 글월의 前頭辭을 보아 家庭을 慰安機關으로 보시는 듯하나 家庭이란 人生苦의 實驗室인 줄 생각합니다. 制度가 아무리 變한다 하더라도 이 苦만은 依然히 苦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내게 能力이 있다면 家庭 結婚 離婚制度가 없는 社會이겠지요.

2. 이 問題는 자못 凡庸하면서도 또 奇拔할까요. 그러나 一의 問題의 一派生인 듯합니다. 男性의 一 慰安機關으로 家庭을 볼 때 妓生制度란 亦是 같은 意味로 必要하겠지요. 現代 부르주아 社會의 家庭 卽 一女가 一男을 爲하여 終生의 賣春 대신에 이것은 一時的 賣春으로 看做할 수 있으니까요. 그야 可否을 말할 것 없이 이와 비슷한 卽 一時的 賣春은 男性專制王國이 崩壞될 때 自然消滅하겠지요.(小說家 玄鎮建, 『結婚制度 없는 社會』)²⁰⁾

1. 家庭... 社會의 延長 그것인 家庭, 즉 社會를 모든 目的으로 삼고 구성된 家庭.

結婚... 友愛結婚에 조금 털 난 것.

離婚... 『썸뻬트』에서와 같은.

2. 부르주아 社會가 沒落하면 그들의 享樂機關(妓生制度도 이의 하나)도 없서질 것이다. 부르주아 社會는 沒落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妓生制度는 廢止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妓生制度는 妓生의 生活을 支持하는 職業이다. 職業없이 그들은 어떻게 살까? 이는 杞憂이다. 새로운 社會는 새로운 얼마든지 많은 職業을 豫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社會가 그대로 存續할진대 妓生問題는 問題도 되지 않는 一小問題.(梨花專門 裴相河, 『友愛結婚以上』)²¹⁾

19) 『性에 關한 問題의 討論(其二), 理想的 家庭制 妓生撤廢』, 『동광』 제28호, 1931. 12, 39-43쪽.

20) 『性에 關한 問題의 討論(其二), 理想的 家庭制 妓生撤廢』, 『동광』 제28호, 1931. 12, 41쪽.

가정의 부부관계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관계의 확보 문제로 이해하는 현진건에 의하면, 아내와 기생의 차이는 종신의 매춘이나 일시적 매춘이나의 차이로 즉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조선사회가 남성 본위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현진건의 분석이다. 여성의 역할이 성적인 것으로 한정되며 성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가정 안팎으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관점은 기생 제도를 부르주아 사회의 폐해로 바라보는 배상하의 관점을 통해 좀더 예각화된다. 배상하는 부르주아 사회의 남성중심주의적 면모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바로 이런 점에서 남성중심주의와 자본 중심의 사회에 대한 동시적 비판이 기생제 철폐론이 지향하는 바로서 제시되기에 이른다.

위계화된 여성 내부의 차이를 통찰하고 남성 본위 세계에 대항하는 여성 연대의 일면을 지적하는 주요한의 논의는 남성 지배와 자본의 지배가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앞선 논의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면서도 미묘하게 결을 달리한다. 주요한의 논의에 의해 “純潔한 아가씨들”과 “賢良한 家庭의 主婦들” 그리고 그들이 적대자라 여기는 “街頭의 女性”이 “家庭의 神聖을 구하기 위하여 싸울 同陳의 戰友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 짙어진다. 주요한은 남녀평등, 이혼의 자유,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양의 책임, 성폭력(“정조유린”)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률로서 보장하는 권리와 보상은 체제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²⁾

21) 『성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二), 理想的 家庭制 妓生撤廢』, 『동광』 제28호, 1931. 12, 43쪽.

22) 주요한, 『성에 관한 諸問題』, 『동광』 제28호, 1931.12, 45쪽. 이러한 입장이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입장이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러한 통찰이 이미 1930년대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성의 질병화와 성병 공포

기생충폐론을 측면에서 보강했던 것은 성병 담론이다. 기생충폐론을 통해 가정 바깥에 놓인 성은 가정 내 성과 동일한 지평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성이 젠더화되는 동시에 가정을 경계로 위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성의 위험성은 한편으로 기생충폐론으로, 다른 한편으로 성병 담론으로 환기되었으며, 성의 위험성은 결국 위험한 여성에 대한 환기로 이어졌음을 확인시킨다.

이미 조선 중기 때 매독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음에도 고위험군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성병은, 실질적인 성병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공창제 공식화에 따른²³⁾ 예로 문화의 확산과 연애와 결혼의 결합을 통한 성담론의 재편이 이루어지던 192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질병이 되었다.²⁴⁾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자살과 살인 등이 성욕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욕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해야 하는 관점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필례의 여성을 위한

23) 1916년 통일법규에 의해 전조선에 확장되기 시작한 공창제는 1947년 11월 공창제도폐지령에 의해 형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1934년 ‘화류병 예방령’을 공포하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다각도의 성병 예방과 대책 등을 시행했지만 큰 효력은 없었다. 성병의 확산에는 조선에 공창제를 도입했던 일본의 성병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 강혜경, 『일제시기 성병의 사회문제화와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87-118쪽.;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89-417쪽; 최은경, 『일제감정기 한국 문학에 나타난 성병』, 정과리·이일학 외,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100-104쪽.

24) 성병은 주로 매독(syphilis), 임질, 연성하감 등을 총칭하며(『민족도 멸망하는 화류병에 대하여』(1)(2), 『조선일보』 1929.5.2.-3.) 식민지기에서는 대개 문명병, 화류병, 유전병으로 불렸다. 성병을 ‘화류병’으로 지칭함으로써, 성병을 둘러싼 담론을 ‘화류계’의 이미지에 가두는 효과가 있었다. 성적 방종의 이미지와 떼어 수 없는 것으로서 성병은 숨겨야 하거나 부끄러운 병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400쪽.)

계몽서인 『성교육』(1935)에서 길게 언급되었던 바처럼, 자위, 동성연애와 함께 성욕과 관련하여 성병은 사회적 파괴력을 갖는 주요 문제로서 인식되었다.

1927-28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염상섭의 소설 『사랑과 죄』에서 단적으로 엿볼 수 있듯, 1920년대 중반 이후로 육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에 폭넓게 유포된 성적 욕망을 부정적인 것이자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뚜렷해졌다. 매독에 걸린 이에 대한 여주인공 순영의 비판은(“『대관절 남녀의 그 짓이란 무어람? 에이 더러워! 그러기로서니 사람이 었더케 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싸위 짓을 하드람!”²⁵⁾)은 여성 주인공의 입을 빌려 발화된, 당대의 대표 작가를 통한 성에 대한 당대 감각으로 보아야 하는데, 순영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내뱉는 경멸적 비판을 통해 1920년대 이후로 뚜렷하게 가시화된, 여성의 성행위와 성적 욕망이 곧바로 도덕적 타락과 동일시되는 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문학이 다룬 성병은 대개 성병을 앓는 남성주체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집중했으며, 때로는 사회의 총체적 타락상의 메타포로 원용되었다.²⁶⁾ 방종한 성생활로 성병에 걸려 생식능력을 상실한 한 남성이 결혼 후 아이를 얻게 된 웃지 못 할 상황을 그린 1931년 12월 『동광』에 실린 김동인의 『발가락이 닳았다』를 떠올려 봐도 좋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병 환자를 치료하다 환자의 소변이 눈에 튀어 간호사가 실명을

25) 염상섭, 『사랑과 죄』, 염상섭전집 2, 민음사, 1987, 20쪽.

26) 이재선, 『『타류』: 성병의 은유적 도상학』, 『시학과언어학』 제7호, 2004, 243-261쪽; 김미영, 『일제하 한국근대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309-336쪽;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89-417쪽;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49호, 2012, 308쪽; 서희원, 『‘나쁜 피’ 혹은 매독과 광기의 서사-채만석 『타류』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한국어문학연구』 제62집, 동악어문학회, 2014, 355-384쪽.

했다거나(『동아일보』 1933.7.20.) 유아의 매독이 유모에게 전염되어 유모가 산모에게 소송을 건 사례(『조선중앙일보』 1935.8.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병에 대한 신문지상의 다양한 소개는 유전성 질환이 아님에도 악화될 때에는 정신질환 등 뇌질환의 위험이 있고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식으로, 공포를 조성하는 질병으로서, 무엇보다 여성의 문제로서 다루어졌다.²⁷⁾

성병은 이처럼 감염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서 다루어졌는데, 감염과 그 확산이 여성의 성적 욕망에 관한 문제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성적 욕망이 성기 중심으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경향 속에서 성역할의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여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성병 문제는 여성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연관된 문제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감염의 공포는 여성의 성적 욕망이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민족)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⁸⁾ 성생활을 포함한 성문제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優生學的 社會的 人道的 問題”로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²⁹⁾

기생철페론이나 김필례의 『성교육』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성병의 전염 경로에 대한 논의가 매매춘 종사자와 당사자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감염의 근원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³⁰⁾ 여기에

27) 「남편으로부터 전염된 매독 비관 음독한 애처」, 『조선일보』 1926.3.14.; 「화류병 예방」(1)-(3), 『동아일보』 1927.2.12.-14.; 「화류병예방안」, 『동아일보』 1927.3.17.; 「어린아해 영양불량의 원인과 치료법」(상), 『동아일보』 1927.11.12.; 「결혼의학의 지식」(7)-(8), 『동아일보』 1928.11.6.-7.; 「여러가지 화류병은 가정과 사회를 망칩니다」(1)-(10), 『조선일보』 1932년.12.7-18.; 「이 무서운 화류병을 『사나이가 그 것쯤이야』하다가 안해·자녀를 망쳐노하」, 『조선일보』 1934.9.6. 등.

28) 강혜경, 「일제시기 성병의 사회문제화와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103-104쪽.

29) 김기림, 「職業女性과 性問題」, 『신여성』 제58호, 1933.4, 29-33쪽.

30) 이용설, 「花柳病의 原因 病勢及治療, 健康欄 衛生講話」, 『동광』 제9호, 1927.1,

는 성병 전염의 근원에 공창제가 놓여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병이 —개인에게 전염되면 그 병독이 —개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안이하고 개인으로부터 그전 가족에게 가정으로부터 사회 —반에 파급되니 어찌 두렵지 안이하랴.”³¹⁾ 식의 기술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 매매춘에 의한 성병이 개인의 질환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의들에서의 핵심 논점이었다.³²⁾

성병의 사회적 면모에 대한 이런 논의와는 달리, 흥미롭게도 성병의 제도 대상은 일반여성이었고 단속 대상이 매춘여성이었다면, 성병 질환자나 그 치료제의 광고 대상은 남성이거나 혹은 부부 가운데 남성이었다. 성병의 공포가 결과적으로 여성을 위계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³³⁾ 이런 논의 속에서, 성병은, 결과적으로, 가정 안팎으로 배분된 여성의 차이 없이 여성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여성은 한편으로는 성병의 직접적인 매개자로서 다루어지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병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하는 간접적인 매개(자)이자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섹슈얼리티를 질병으로서 인식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성행위를 통해 성병을 옮길 수 있는 존재이자 그 병을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서 규정되

85-86쪽.

31) 김필레, 『성교육』, 조선야소교서회, 1935, 88-89쪽.

32) 물론 개인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라는 이러한 인식은 정기적 관리로는 성병의 전염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1906년부터 창기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성병 검진은 검사의 정확성 자체가 낮기도 했지만, 실상 남성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을 막을 수 없었고, 검사에 치중했을 뿐 감염자로 판단되어도 치료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역사』 제26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183쪽.), 따라서 매매춘 제도에 대한 발본적 철폐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33)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49호, 2012, 313쪽.

어갔던 것이다.

이 병으로 여자에게는 落胎를 發하게 하는 일이 第一 혼하고 生兒를 順산하여도 몇칠 지나지 못하여 곧 사망하던지 그러치 안하면 여러 가지 병이 續出케 된다. 그 중에 혼한 病으로는 腫物(헌데)이 만히 發한다. 手足이며 眼, 鼻孔, 口唇, 肛門에 糜爛이 되어진 물이 나고 혹은 骨端 즉 손목이나 발목에 肥厚를 發하고 疼痛을 發하는 例도 적지 않다. 이런 아이가 다행히 상당한 치료를 바르면 회생될 가망이 있스나 그러치 못하면 거의 사망케 된다. 이 어찌 可恐할 병이 아니리오. 일시에 情慾으로 一身을 亡케하고 자손에게까지 如此의 累를 짓치게 되는 것을 청년 諸君은 기억하기를 바란다.³⁴⁾

최후에 말씀할 것은 先天 微毒이니 微毒에 걸린 부인이 임신하거나 혹은 임신 중에 微毒에 걸리면 모체내의 「스피로헤테, 팔리다」는 대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염하는 까닭에 流産, 早産, 死産을 초래하고 다행이 산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微毒의 病狀을 일으키거나 혹은 생후 直時에는 표면상 건강히 보이다가 7, 8세 내지 16, 7세에 至하면 비로소 病狀을 發生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미리 微毒 있는 부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것이며 비록 임신 중이라도 초기에 일즉 충분한 치료를 하면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流産이나 早産하는 부인은 반드시 혈액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母의 微毒이 大端 오래되어 제3기 이후에 임신하거나 혹은 妊娠極後期에 母가 微毒에 걸리면 건강한 兒孩를 얻는 일이 있으나 드문 일입니다.³⁵⁾

성병의 접촉성의 특성, 무엇보다 성행위를 중심으로 한 전염 방식은 성병이 단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성행위에 매개로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때 위협받는 관계란 다름 아닌

34) 이용설, 「花柳病의 原因 病勢及治療, 健康欄 衛生講話」, 『동광』 제9호, 1927.1. 87-88쪽.

35) 오원석, 「可恐할 微毒病, 그 原因治療 及 豫防法, 純潔한 청년에게 드리는 警報」, 『동광』 제17호, 1931.1. 75쪽.

가족이었다. 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 관계는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적인 파급력을 낳게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으로서 호명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과 육체의 발견이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명시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성(性)가족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병균이 눈에 들어가면 큰일이라고, 그것은 학주도 이미 전에 드러 알고 있는 것이지만, 약제사가 그 증세와 경과를 설명하여, 림균이 눈을 침범한 뒤, 빠르면 일시간, 늦어도 이삼일간의 잠복기를 지나면, 아연, 급성 결막염으로 발육하여, 환자 자신이 자기 눈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으로,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의 진찰을 보드래도, 그 치료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이, 그 림균성 결막염 환자의 구십구 퍼-센트는 반듯이 실명하고야 마는 것이라 일러 주었을 때, 학주의 불근신한 웃음은 얼굴에서 사라지고, 뜻밖에 그의 놀라움을 컸다.³⁶⁾

... 외입을 자주 한다드라도 얻어결린 병은, 그 어느 한 경우의 것일 게요, 사람이 얼마든 불운할 수 있다 하면, 하필 이 짧은 동안의 음력만으로도 능히 자기 가정에 불행을 이끌어 드릴 수는 있는 일이라, ...³⁷⁾

성인 남성 3인 가운데 한 명은 성병 환자라는 당시의 질병 통계에 기반하여 성병 공포(매독공포증)를 주요 모티프로 성병이 만연한 사회의 일면을 다룬 박태원의 소설 『악마』(1936)에서는 성병과 그 공포 담론이 인물 형상과 서사로 구체화되어 등장한다. 소설은 매매춘을 한 남성이 성병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아내와 아이에게 전염될 것을 염려하는 성병 공포를 다룬다.³⁸⁾ 앞선 담론을 통해 이미 확인할 수 있었듯, 성병

36) 박태원, 『악마』 상, 『조광』 제2권 제3호, 조선일보사, 1936.3, 378쪽.

37) 박태원, 『악마』 상, 『조광』 제2권 제3호, 조선일보사, 1936.3, 386쪽.

38) 최은경, 『일제강점기 한국 문학에 나타난 성병』, 정과리·이일학 외,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117-121쪽.

이 가족에게 전염될 것에 대한 이러한 공포는 전염병으로서의 성병에 대한 치명성을 환기하는 것인 동시에 성적 욕망이 부부관계 내에서만 ‘안전한’ 것이자 정당한 것이라는 담론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악마』가 보여주고 있듯, 성병은 “개인적인 자각과 이해”³⁹⁾가 요청되는 병임에 분명하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자가-인식 없이 발병 여부도 포착하기 쉽지 않다. 말하자면 병의 인식과 치료에서 병에 대한 앎이 중요한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성병 예방을 위해서도 병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이유로 성병 관리 담론에는 성적 욕망의 조절과 규율 원리가 포함된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돌봄과 연관된 문제로서, 질병의 병원균이거나 매개체로서, 즉 감염과 유전을 통해 현실화되는 성병 공포와 그 사회적 영향력을 환기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질병으로서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여성의 욕망을 조절하거나 규율하는 원리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성병의 전염원으로서 여성의 위험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그 성병의 전염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서 성병에 대한 남성의 앎이 요청되는 이 비대칭적 구도 속에서 섹슈얼리티의 부정성을 둘러싼 성별구분이 층차를 이루면서 위계화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3. 성(性)가족과 근친상간의 성정치

성(性)가족의 형성은 섹슈얼리티의 배분과 연동되어 있었고, 배분의 과정은 가정의 내부(주부)와 외부(창부)를 엄격하게 경계 짓는 후속적 배분의 논리를 강화하는 연쇄작용을 불러왔다. 남자들에게 에로 공간을 통한 ‘에로적인 것’의 향유가 문화로서 확대되던 시기에, 가정 안팎으로

39) 오원석, 『可恐할 徵毒病, 그 原因治療 及 豫防法, 純潔한 청년에게 드리는 警報』, 『동광』 17호, 1931.1. 73쪽.

의 (안전성과 정당성 여부에 따른) 성의 배치가 위계화된 여성의 배치를 통해 강고해진 것이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의 인식적 재편은 성의 남성적-여성적 구도로 환원된 젠더적 배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원리를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즉 불가피한 금지 담론의 동원을 통해 보강되었다. 에로 문화가 자본의 논리와 결합하여 에로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 형성을 통해 구축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가족의 재생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성이 가정 바깥으로 내몰리는 속도가 그만큼 더 가속화되었다고 해야 한다. 이때 섹슈얼리티에 입각한 사회적 재편은 성적인 것에 대한 윤리 구축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에로 경제의 형성은 쾌락이 교환 가능한 상품이자 자본이 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동시에, 섹슈얼리티의 근대적 재편의 일환으로서, 결과적으로 인구의 증가를 굳건히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사회관계의 형태를 갱신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⁴⁰⁾

푸코를 빌려 말해보면, 성가족의 형성은 가족의 형태 안에서 섹슈얼리티의 장치와 혼인관계의 장치가 고정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치를 부여받기 시작하는 근대 이후로, 섹슈얼리티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가족의 종적·횡적 차원 즉 남편-아내의 축과 부모-자식의 축 위에서 전개되기 시작한다. 근대적 법률 제도가 도입되고 일부일처제 혼인이 법률에 의해 지지되기 시작한 1920년대 초(1923년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2차 개정안) 이후로,⁴¹⁾ 부부의 사랑에 기반한 혼인관계가 배타적인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가족은 혼인 관련 제도에서 그때까지 무시되었던 성적 면모들을

40) Ann Laura Stoler, "Matters of Intimacy as Matters of State: A Response",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88, No.3 (Dec., 2001), pp. 893-897

41)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85-113쪽;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9권, 한국여성사학회, 2008, 86-97쪽.

혼인제도로 집중시킴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혼인관계의 특권과는 별개의 섹슈얼리티를 새롭게 생성시키게 된다. “섹슈얼리티와 혼인관계의 입체교차로”로서 가족이 섹슈얼리티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되는 동안, 즉 혼인관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며 압도적 권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근친상간의 금지가 기능적으로 불가결한 규칙으로서 동원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혼인관계의 정당성은 성적 욕망이 기도 한 사랑에 근거할 때 확보되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내부에서 용인되지 않는 섹슈얼리티를 가족-가정 바깥으로 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성가족의 형성은 섹슈얼리티를 은폐함으로써, 내부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근친상간 금기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⁴²⁾ 사적인 공간이면서 정치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가족 형성을 위해 근친상간 금지가 필요하다면, 근친상간 금지는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억압되는 성을 역설적으로 가시화하게 하는 작동 원리로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가정 바깥의 섹슈얼리티의 생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1920년대 중반 이후로, 대중적인 연애 서사에서 근친상간 금지가 주요 테마로 등장하여 큰 관심을 끌게 된다. 가령, 양주동이 “독견의 에로작품”⁴³⁾으로 명명했던 소설 『승방비곡』(1927.5.10.-9.11 『조선일보』 연재)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과 사랑의 결실로서의 혼인 그리고 그 귀결로서의 가족 되기를 가로막는 심각한 방해물로 등장하는 것은 근친상간 금지이다.⁴⁴⁾ 연재소설 『승방비곡』은 이후 영화로 제작되고(동

42) Michael Foucault(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나남, 2019, 125-127쪽.

43) 물론 이때 에로작품이란 향락주의 문학 즉 대중적인 연애소설이거나 통속소설을 가리키는 것에 가깝다. 양주동은 에로 그로 문학의 유행이 지속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주류의 문학은 아니라는 지적을 덧붙인다. 양주동, 『회고·전망·비판 문단제사조의 총횡관』(3-8), 『동아일보』 1931.1.3.-9.

44) 근친상간 금지가 섹슈얼리티의 근대적 재편 과정에서 유일한 금지 규칙으로 작동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정조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자유연애론이 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1920년대 이후로, 정조론은 개인의 욕망에 대한

양영화사, 1930) 연극으로 공연되었는데, 그러한 대유행에서 『승방비곡』이 독자를 향해 발신하는 성적 욕망과 근친상간 금지의 강제가 갖는 힘의 작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한다. 성적 욕망을 다룬 1920년대 최독건의 장편소설(『승방비곡』, 『난영』, 『향원염사』 등) 가운데에서 독자 호응이 가장 컸던 작품이 『승방비곡』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해봐도 좋을 것이다.⁴⁵⁾

1920년대 중반 이후로 성적 욕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었음은 『이심』, 『사랑과 죄』(염상섭)나 『승방비곡』, 『난영』, 『향원염사』(최독건) 등의 소설이 여성의 성적 욕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정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⁴⁶⁾ 일부일처제를 구축하는 법적 혼인관계는 사랑 없는 가정이 악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연애와 결혼을 법적 정당성을 통해 결합시키고자 하는 경향 속에서 연애 없는 결혼이나 혼인관계 바깥에서의 연애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 이어졌다. 연애의 근간이 되는 욕망이나 성적 욕망 논의가 폭넓게 확산된 것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 형태의 사랑과 그 실패에 관한 소설이라고 해야 하는 『승방비곡』

처리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자유와 권리 획득의 차원에서 지속적 논쟁이 이어졌던 문제였다. ‘남자의 정조’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았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한 공창제와 불평등한 간통죄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성이 혼인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결혼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도덕률로서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고 성을 통제하는 규율 원리로서 작동하였다. 소현숙,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2017, 369-389쪽.

45) 강현구, 「최독건의 『승방비곡』에 나타난 영화의 영향」,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9, 367-384쪽; 김지영,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64-165쪽; 채호석, 「대중소설 혹은 근대소설: 1920년대 최독건 장편 소설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16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98-123쪽.

46)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과 섹슈얼리티의 서사학』, 소명출판, 2007; 이주라 「탕부(蕩婦)의 남자들과 힘의 동경」,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46-49쪽.

에서 사랑은 승려와 과부와의 경우를 통해 보여주듯,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질타되기에 앞서, 인간 본래의 피할 수 없는 본성에 가까운 것으로 다루어진다. 자유연애가 굳이 ‘자유’라는 덧붙이 불필요한 연애를 가리키게 되고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자 심지어는 난잡한 교제라는 의미까지 포괄하게 되자, 연애는 ‘남녀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신성하고 미묘한 사랑’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⁴⁷⁾ 근대적 결혼은 이러한 사랑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으로, 따라서 사랑이란 결혼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자,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숭고한 것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연애-사랑-결혼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전제하는 자리에서, 『승방비곡』은 근친상간 금지를 소재로 자유연애가 불가능해지는 지점을 사랑의 서사로서 보여주며, 성적 욕망의 억압과 조율을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⁴⁸⁾

근친상간이라는 운명적 방해물에 의해 ‘가족 되기’로의 귀결이 처음부터 차단된 그들의 사랑은, 따지자면 성적 욕망의 다른 이름에 가까운 것이었다.⁴⁹⁾ 김은숙에 대한 해운(최영일의 범명)의 성적 욕망이 극복해야 할 승려의 번뇌로서 그려지고 동시에 은숙의 욕망 또한 꿈의 형식을 빌려 구체적으로 그려질 때, 표면적으로 이들의 성적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세속적인 욕망을 조율하라는 종교적 계율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

47) 김필례, 『성교육』, 조선야소교서회, 1935. 21쪽.

48) 채호석, 「대중소설 혹은 근대소설: 1920년대 최독견 장편 소설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16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101-103쪽.; 이계열, 「『승방비곡』의 사랑의 기호」, 『인문학연구』 제12호,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5-156쪽.; 윤정현, 「일제하 연애소설의 두 양상-『승방비곡』과 『방랑의佳人』의 대비를 통해 본」, 『어문학』 제87집, 한국어문학회, 2005, 597-599쪽.; 강현구, 「최독견의 장편 소설 연구」, 『국어교육』 제116집, 한국어교육학회, 2005, 409-439쪽.

49)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이루어진 급행열차 객실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이후로, 동경 유학생 출신인 최영일과 김은숙이 운외사의 상자중과 이화학당 여자교원으로 재상봉하며 이후 금강산을 함께 구경하면서 상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

나 사실 종교의 이름을 내세워 그들의 사랑 혹은 성적 결합을 막으려는 것은 소설의 후반에 이르러 밝혀지는 그의 아버지 해암선사이며, 여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형태로 우회된 김은숙과의 관계에 대한 해암선사 즉 아버지의 경계와 금지의 말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극히 랭정하고 초연한 줄 미덥스나 나에게도 나 모르는 남자가 숨어있고 젊음이 끼여있었다. 나도 모르든 이것들은 내가 가진 젊은 이성(異性)의 향기를 도화선(導火線)으로 하여 폭발하려 하였다. 요전날 개재서령 주막에서 밤에 밧그로 뛰어 나간 것도 약하나마 나의 시남에게 대한 의무와 나 자신에게 대한 약속을 직히려 함이었다. 말하자면 피난이었다. 그러나 이 피난은 도저히 영구할 것이 못되었다.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순간을 보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형식을 벗고 사랑하자는 것이다. 나의 움죽이는 정은 반드시 젊음의 충동(衝動) 뿐이 아니라 인생으로써의 고독을 위로하자는 것이 아닐가 한다.⁵⁰⁾

『승방비곡』에서 금지의 위반은 우선 ‘가족 되기’ 메타포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짜 남매 즉 유사 가족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은 성적 욕망을 외면하거나 은폐한다. 남매로 지내기로 하면서 “정욕을 떠난 남녀교제”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계율을 지키는 동시에 해암선사-아버지의 말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승려로서의 타협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종교적 계율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금지의 힘은 아버지의 말의 권위에서 나왔다고 해야 하는데, 종교적 계율에 의한 금지의 말이 최영일의 환속, 세속화 과정에서 해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극복할 수 없는 사랑의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승방비곡』은 바로 이 지점에 사랑과 혼인 그리고 ‘가족 되기’로 이어지는 가족 내 섹슈얼리티 장치의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영역을 가시화한

50) 최득견, 『승방비곡』 신구서림, 1929, 71-72쪽.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유사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성적 결합을 전제하는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다. 결혼식 당일에 은숙의 어머니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 후, 영일과 은숙이 이복남매임이 밝혀지면서 결국 그들의 결혼식은 중지된다. 유사 남매의 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사랑이 혈연 남매 관계 속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기에 이른다. 그들의 사랑이 끝내 혼인관계로 귀결되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혈연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다.⁵¹⁾ 여성의 성과 욕망이 혼인에 의해 그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가족-섹슈얼리티 장치에서 근친상간의 금지는 혼인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혼인을 위태롭게 하는 주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요컨대, ‘가족-되기’ 메타포가 그들의 사랑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담고 여는 이중적 잠금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임을 비극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승방비곡』을 통해 섹슈얼리티의 배치와 규율이 사랑-연애-‘가족-되기’라는 제도로서 일상 차원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⁵²⁾

51) 물론 이때 연애관계의 파탄과 혼인관계에 의한 가족의 실패는 그들의 사랑의 진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들이 혈연관계라는 조건 자체가 그들의 사랑의 불가능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52) 이후, 성과 욕망에 대한 문학적 관심을 통해 섹슈얼리티 재구를 지속해온(이현주, 『이효석 문학의 배경에 대한 주석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박사), 2009.; 한수영, 『정치적 인간과 성적 인간』, 『외국문학연구』 제4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2, 53-82쪽.) 이효석의 소설 가운데에서도 1941년 『춘추』에 발표된 소설 『산협』은, 1930년대를 거치고 난 후 근친상간 금지의 위반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의 일면, 사회의 성적 재편이 만들어낸 시차적 면모를 확인하게 한다.(이혜경, 『『山峽』의 연구-이효석 문학의 재평가를 위하여』, 『현상과인식』 통권 16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1, 122-123쪽.) 후손을 얻고자 황소를 짝인 여성으로 바뀌은 『산협』의 주인공 공재도는 끝내 후손을 얻는데 실패할 뿐 아니라 부인 송씨와 새로 구해온 원죽댁 양자에게서 자신의 혈연이 아닌 아이를 얻게 된다. 대장장이의 아내였던 원죽댁이 공재도를 따라 오기 전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과 달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비난받던 송씨는 자살을 시도한 자신을 구하고 백일치성을 드리러 오대산 월정사에 함께 갔던 조카와의 관

4. 우생학적 위생 담론의 관리술

덧붙이자면, 근친상간 금지 담론과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가족 이데올로기는 점진적인 사회 개조 논리의 일환으로 폭넓게 사회에 유포되었던 우생학의 복음을 통해 탄탄하게 구축되었다. 1920-30년대에 걸쳐 유전학적 상식이 널리 유포되면서, 우생학상의 이유로 인한 근친혼의 금지가 동성동본 금혼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있었다.⁵³⁾ 『승방비곡』에서 최영일과 김은숙의 혼인관계의 실패에는 일상-독자 층위에서 작동하는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승방비곡』에서 김은숙에게 구애를 했고 강간 모의를 통해 그녀와의 결합을 도모했던 이필수 역시 그녀와의 혼인관계 맺기에 실패하는데, 이 실패를 정당화한 논리 또한 우생학적 위생 담론이었다. 부인과 삼남매의 자식이 있는 이필수가 김은숙과의 관계를 법적 혼인의 형태로 확정하고자 한 시도는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녀와의 결합을 위해 부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청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필수가 김은숙과 혼인관계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부인에 대한 처사 때문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필수의 부인이 “부양료라는 일만 원의 퇴직수당을 받고 민적상

계에서 아이를 얻는다. 소설은 송씨와 그녀가 “가까운 혈육이기는 하나 성이 다른 조카를 내 자식으로 들일 의사는 없었”음에도 “기쁜 보람이 있어 어느 결엔 지 늙름한 장정으로 자란 조카를 마음에 두거나, 머슴과 함께 밭일을 할 때에는 어른 한 뫼를 너넉히” 해내는 조카 증근이 날이 지날수록 기운을 못차리는 백모를 보며 “그 쓸쓸한 자태”가 “가슴을 에우는 듯도 해서 원쑤집 잔소리나 삼촌의 책망을 받을 때마다 백모를 막아주고 싶은 생각”을 하곤 했음을 포착할 뿐이다. 『산협』은 근친상간 금지가 일부일처 중심의 혼인관계를 강화하는 논리로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1930년대를 거치면서 근친상간 금지는 일부일처 중심의 혼인관계를 통해 강화된 가부장제의 균열을 보여주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비극적으로 가시화한다.

53) 소현숙, 『부계 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1950-19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홍양희 외,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204-206쪽.

권리를 포기”(112쪽)하는 것으로 처리됨으로써, 김은숙과의 혼인관계를 꾸리려는 시도 자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이필수와 김은숙의 혼인관계 불발은 오히려 성적 욕망에 관한 한 이필수의 행적이 불러온 결과로서 다루어진다.

“이 시기로부터 身體 어떤 器管에던지 發病케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위험한 것으로 말하면 眼疾, 心臟病, 肝臟, 血管病 이 중에도 動脈痛 가튼 것은 심히 공포할 만한 者이다. 이 외에도 骨膜 及 骨의 병 특히 骨膜炎이나 두개골에 獲膜腫 가튼 것은 흔히 보는 것이다. 이 병이 뇌에까지 침입이 되어 神經을 상함으로 四肢를 쓰지 못하게 하며 大小便의 失禁을 發하는 것과 더 심하면 狂人까지 되게 하는 일이 非一非再다.”⁵⁴⁾ 세브란스 교수 이용설의 언급이나 매독으로 대표되는 성병의 위험에 대한 앞서의 논의에서 환기되었던 감염 경로가 『승방비곡』에서 이필수-한명숙-아이의 관계로 그대로 구현된다.⁵⁵⁾ 이필수가 성적 욕망을 사랑-혼인(관계)-‘가족-되기’의 과정 바깥에서 향락적으로 향유한 결과에 대한 소설 내에서의 치죄는 냉혹한데, 총상 입은 다리를 절단하면서 ‘불구의 몸’(245쪽)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명숙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반성은 그를 정신질환자가 되게 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⁵⁶⁾

54) 이용설, 『花柳病의 原因 病勢及治療, 健康欄 衛生講話』, 『동광』 제9호, 1927.1, 87쪽.

55) 한명숙은 아이를 살리겠다는 모성애로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데, 기생 오입과 여학생 오입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성병에 걸린 이필수에게 감염되어 임독성 결막염에 걸리게 된 한명숙이 결국 앞을 못 보게 되고, 그 병이 산모를 통해 아이에게까지 전염되는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56) 덧붙여, 여성들의 죽음, 좀더 정확하게는 여성들의 자살이 사랑-혼인-‘가족-되기’의 제도 강화와 연관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의 형태 안에서 섹슈얼리티의 장치와 혼인관계의 장치가 고정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죽음, 정확하게는 그녀들의 자살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방비곡』에서는 세 여성의 자살이 있다. 은숙의 어머니가 자신이 과부일 때 스님과 낳은 아이가 재혼 후 자신이 낳은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결혼을 약속하자 자살을 선택하여, 그 결혼을 막는다. 황해도 재령 지역의 은전은 지주인 이준식이 자신을 첩으로 삼기 위해 부모를 협박하고 회유하자 연인 명진과 함께 그곳을 물

성적 욕망에 대한 논의에서 ‘정당하지 못한 성적 생활’에 대한 주의가 꽤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김필례의 『성교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른 한편으로 성적 욕망이 야기한 부정적 결과들 특히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의 발병 원인이 성행위에 있으며, 매독과 임질 등의 성병이 성행위를 통해 전염될 뿐 아니라 보균자와의 접촉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료적 진술들이 폭넓게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성병 담론에서는 성행위의 상대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유전되어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성병이 결과적으로 가정을 거쳐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이 강렬하게 환기되고 있었다.⁵⁷⁾

근친상간 금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성가족 체제는 가정이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한 경계선을 강화하고 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가정 안팎으로 배치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내부의 위계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이성애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성’의 위계 확립은 이성애에 기반한 가부장 체제의 기틀이 섹슈얼리티의 재편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해야 한다. 성병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성을 매개로 한 세

래 떠났으나, 붙잡혀와 감금되고 연인의 소작지와 집을 빼앗아 꼼짝없이 첩이 될 상황에 처하자, 우물에 빠져 생을 마감한다. 한명진의 여동생으로 여자미술 학교 여학생이었던 한명숙은 이준식의 아들 이필수의 계략에 걸려들어 농락당하고 결국 임신한 채 버림받아,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한다. 이후 이필수로 부터 얻은 임질성 안질로 자신과 태어난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운을 견디던 그녀는 자신을 버린 남자가 병에 걸려 죽자 그를 따라 죽는다. 한명진이 사랑했던 두 여인, 연인이었던 음전과 여동생 명숙이 둘다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녀들의 죽음이 사랑에 근거해서 혼인관계로 귀결하는 이성애 중심의 일부일체제 바깥의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57) 김필례, 『성교육』, 조선야소교서회, 1935. 83-84쪽; 강혜경, 『일제시기 성병의 사회문제화와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103-104쪽.

계인식은 위협의 원천으로서의 최하층 여성을 오염원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오염원인 여성으로부터 순결한 여성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는데, 여기서 위생 담론을 통해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한 여성이라기보다 여성의 성적 욕망 일반이 된다. 사회에 가시화된 여성의 성적 욕망 전체가 병리화되면서 여성 내 위계 즉 성적 욕망의 위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욕망을 병리화하는 이런 전환에 생물학적·의학적 담론이 구체적으로 동원되었으며, 그 근간에서 동원의 지지 근거를 마련한 것이 근대화와 탈식민의 논리를 동시에 녹여내고 있던 우생학 차원의 질병과 위생 담론이었던 것이다. “긍정적인positive” 유전자 형질을 가진 사람만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우수한 인간 종자를 번식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믿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지식장에서 일상 문화 전반에까지 스며있던 우생학의 복음은,⁵⁸⁾ 근대 문명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식민의 억압과 착취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도, 탈식민의 가능성을 열게 할 조건으로서도, ‘건강한=정상’의 ‘여성의 몸’의 확보라는 요청이 각기 다른 정치적 맥락 속에서도 공유될 수 있었던 근간인 셈이다. 우생학적 위생 담론은 근친상간 금지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억압/생성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 동력이었던 것이다.

58) Kim E. Nielson(김승섭 옮김), 『장애의 역사』, 동아시아, 2020, 195쪽.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광』 『별건곤』 『신여성』
최독견, 『승방비곡』, 신구서림, 1929.
김필례, 『성교육』, 조선야소교서회, 1935.
박태원, 『악마』, 『조광』 1936. 3-4.
이효석, 『산협』, 『춘추』 1941.

2. 참고 논저

- 강현구, 「최독견의 장편 소설 연구」, 『국어교육』 제116집, 한국어교육학회, 2005, 409-439쪽.
강혜경, 「일제시기 성병의 사회문제화와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87-125쪽.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 연구」,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89-417쪽.
김미영, 「일제하 한국근대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글』 제37집, 우리말글학회, 2006, 309-336쪽.
김연희, 「일제하 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특성」,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2002.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49호, 2012, 291-316쪽.
김은정, 「정력(精力)의 서사-『조광(朝光)』에 실린 의약품 광고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53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15, 57-79쪽.
김지영,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년 표상」,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

- 34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45-182쪽.
- 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1, 199-238쪽.
- 박진경·미야지마 요코, 「카페의 식민지근대, 식민지근대의 카페: 재조 일본인 사회, 카페/여급, 경성」, 『한국여성학』 제36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20, 111-151쪽.
-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 과정」, 『한국사론』 제40호, 서울대 국사학과, 1998, 215-275쪽.
- 유승환, 「시선의 권력과 식민지의 비가시성-『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악마」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구보학보』 제16호, 구보학회, 2017, 213-251쪽.
-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역사』 제26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177-207쪽.
- 윤정현, 「일제하 연애소설의 두 양상-『승방비곡』과 『방랑의 가인』의 대비를 통해 본」, 『어문학』 제87집, 한국어문학회, 2005, 589-611쪽.
- 이계열, 「『승방비곡』의 사랑의 기호」, 『인문학연구』 제12호,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5-174쪽.
- 이성은, 「식민지 근대 카페 여급의 정치경제학적 위치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3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07, 47-75쪽.
- 이재선, 「『타류』: 성병의 은유적 도상학」, 『시학과언어학』 제7호, 2004, 243-261쪽.
- 이주라, 「탕부(蕩婦)의 남자들과 힘의 동경」,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8, 43-68쪽.
- 이현주, 「이효석 문학의 배경에 대한 주석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박사), 2009.

- 이혜경, 『『山峽』의 연구-이효석 문학의 재평가를 위하여』, 『현상과인식』 제16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1, 103-127쪽.
-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6, 47-84쪽
-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여성과 역사』 제9집, 한국여성사학회, 2008, 79-119쪽.
- 채석진,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년센스’』, 『페미니즘연구』 제5집, 한국여성연구소, 2005, 43-87쪽.
- 채호석, 『대중소설 혹은 근대소설: 1920년대 최독건 장편 소설의 의미』 제16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 98-123쪽.
- 한수영, 『정치적 인간과 성적 인간』, 『외국문학연구』 제4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2, 53-82쪽.
- Ann Laura Stoler, “Matters of Intimacy as Matters of State: A Response”,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8, No. 3 (Dec., 2001), pp. 893-897
-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여이연, 2013.
- 소현숙, 『이혼 법정에서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2017.
- 정과리·이일학,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 홍양희 외,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 川村邦光(손지연 옮김), 『섹슈얼리티의 근대』, 논형, 2013.
- 西野瑠美子·小野澤あかみ(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일본인 『위안부』 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2021.
- Judith Butler(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 Kim E. Nielson(김승섭 옮김), 『장애의 역사』, 동아시아, 2020.

Michael Foucault(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나남, 2019.

Miriam Silverberg(강진석·강현정·서미석 옮김), 『에로틱 그로테스크
년센스』, 현실문화, 2014.

<Abstrac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xual Family and Sexuality Politics of Incest Taboo

So, Young-Hyun*

Around the 1930s, when colonial Joseon took on a modern aspect, the tendency toward sexualization of society, the commodification of pleasures, and the gendering of desires became clear. These changes were leading the tendency to domesticate sexuality through prohibition of incest. In this paper, borrowing Foucault's discussion of sexuality, I trace the process in which 'sexuality' is given a gendered character and the composition of sexualit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individual identity and the reorganization of society centered on the family, and it was examined as a result of sexuality politics. Specifically, the process of sexual regulation inside and outside the home, which had become visible due to the discourse on venereal diseases and the abolitionism of the prostitution system, were reviewed in terms of discourses operation. And the process of materializing these discourses into everyday awareness was traced while bypassing the narratives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 By examining the mechanism by which prohibition of incest as a taboo in a family, which is the crossroads of sexuality and marital relationship, becomes the center of creating the vitality of sexuality, focusing on the narratives including *Seungbangbigok*. As a result, it was possible

* Yonsei University.

to confirm the sexuality politics in which the fear of venereal diseases and the prohibition of incest control women's sexual desires and build a sexual family system in a way that internally hierarchizes them.

Key Words: sexuality, prohibition of incest, venereal disease, sexual family, sexual problems, 'erotic', eugenics, *Seungbangbigok*[Tragedy in the Monk's room]

■ 논문접수 : 2022년 04월 08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1일